유전탐사 국내기술에 해외투자 활발

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전탐사 기술에 해외 석유 메이저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.
지식경제부는 6월29일부터 2일간 석유공사 안양 본사에서 석유 · 가스 개발분야 연구과제 종합 발표회를 개최했다.
행사에서는 서울대 신창수 교수팀이 개발하고 있는 지층 속도모델링과 지하구조 영상화 기술을 비롯해 석유공사의 오일샌드 생산기술, 한양대 성원모 교수팀의 균열 유가스전 유동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 6개 정부과제의 진행상황이 발표됐다.
프랑스의 석유 메이저 Total은 신창수 교수팀의 기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총 120만유로의 개발비를 지원키로 했고, 사우디 국영 석유공사와도 협력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.
석유공사의 오일샌드 생산기술 및 지상설비 기술은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으며, 캐나다 블랙골드 유전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.
지경부 관계자는 " 연구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전개발 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계할 예정 "이라며 "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만들어 석유개발기업과 서비스기업간 인력 선순환을 위해 노력할 것 "이라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0/7/12>